



예수 그리스도 고난회 총장이신 요아킴 레고 신부님께, C.P.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수도회의 제48회 총회가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이사 야 6:8)'라는 주제로 열리는 것을 기념하여, 귀하와 귀하의 형제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 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곧 축하할 총회는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부름을 받아 새로운 사목 목표에 대해서 경청해야 하며, 이는 교회와 여러분이 파견된 선교 현장에서 기쁨 과 새롭게 다짐하는 열정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서 드러낼 혁신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해지고 성령의 빛으로 인도 받아 현재의 도전에 맞서 창의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웃을 예수님의 편에서 보세요. 그러면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Letters, 437) ‘하느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Letters, 327)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변모된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말씀은 오늘날 여러분 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기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육신과 영혼이 고통받는 이들 사이에서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민의 사도’가 되고, 소외된 이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인류의 고통을 치유하는 하느님 자비의 충실한 도구가 되라는 권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전파함으로써 ‘십자가 지혜’(Sapientia Crucis)의 열렬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묵상함으로써 십자가의 약함을 통하여, 희생적 사랑의 엄청난 힘을 알게 됩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전히 시들지 않는 희망의 길로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겸손한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Ave Crux Spes Unica [오 십자가여,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여].

마지막으로, 귀하의 공동체 창립 300주년 기념 행사인 자비의 초대장을 재확인합니다 - 2021년 7월 1일 - 이 300주년이 ‘많은 현대적 이해의 의견들 속에서 십자가의 중요성을 심화하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고난 수도회의 영적 상속자로서, ‘부활의 신비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자 수도회 가족의 은총임을 확고히 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선포되고 전파되며, 세상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십자가의 성 바오로의 고난의 신비와 통고 성모의 성 가브리엘의 보호에 맡기며,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전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형제적으로

Francisco

로마, 성 요한 라떼란 성당에서, 2024년 9월 29일
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축일에.